

편집증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기개념과 추론편향*

이 훈 진[†]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편집증의 핵심 요인으로 가정되는 부정적 자기개념과 방어적 귀인양식, 자기참조적 표적 추론, 의도성, 적대성에 대한 추론 편향간의 관계, 그리고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이 이 변인들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대학생 444명에게 편집척도, Beck 우울척도, 적대감 척도, 자기개념 질문지, 자기개념 괴리 질문지, 귀인 및 표적지각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자기개념, 다른 사람의 애매한 행동을 자신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 적대적 행동으로 추론하는 경향이 편집증과 관련되었고, 편집성향 집단은 애매한 상황의 원인은 내부 귀인하고, 명백하게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외부 귀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기개념 수준은 편집성향 자체는 물론 표적, 의도성, 적대성 추론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상관과 예언력을 나타내 편집증 이해의 핵심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편집증에 대한 최근의 설득력 있는 가설은, 편집증이 부정적 자기개념과 낮은 자존감에서 시작되어 자존감을 유지하고 방어하려는 극단적인 시도에서 형성된 증상이라는 것이다(이훈진, 원호택, 1997; Bentall, Kinderman, & Kaney, 1994).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 편집증은 부정적 자기개념에서 시작되며, 위협 단서에 대한 선택적 민감성,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 그리고 타인의 애매하고 비 위협적인 행동까지도 자신을 향한 의도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해석하는 편향, 부정적인 상황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

*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훈 진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 200-702/

FAX : (0361)256-3424 / E-mail : hjlee@sun.hallym.ac.kr

게 돌리고 긍정적인 결과는 자신에게 귀인하는 극단적인 자기봉사적 귀인편향과 관련된다는 것이다(이훈진, 원호택, 1997, 1998). 이 가설은 원호택과 이훈진(1997), 이훈진과 원호택(1995b, 1998)에 의해 부분적으로 검증, 지지되었으며, Candido와 Romney(1990), Fear, Sharp 및 Healy(1996), Kaney와 Bentall(1989, 1992), Kinderman(1994), Kinderman과 Bentall(1996, 1997)에 의해서 자기개념과 귀인양식에 대한 가설의 일부가 검증되었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b)은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이 비편집 집단보다 자존감과 자기개념이 모두 부정적이고,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 자존감보다는 자기개념이 편집성향 경향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높다고 보고했다. 한편 Bentall 등(1994)은 피해관념에 관여하는 인지적 편향이 Higgins(Higgins, 1987; Higgins, Klein, & Strauman, 1985)가 주장하는 자기개념 괴리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울이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큰 괴리에 머무는 것이 특징인 반면, 피해관념은 이 괴리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정적 생활사건이나 자극에 의해 자기-이상 괴리가 활성화되면 망상 환자들은 극단적인 외부 귀인을 통해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지각된 괴리를 적극적으로 줄이려 한다고 가정했다.

Kinderman과 Bentall(1996)은 Higgins의 자기질문지 수정판을 사용해 피해망상 집단, 우울 집단, 통제 집단을 비교했는데, 피해망상 집단은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실제 자기와 당위적 자기간의 괴리는 통제 집단처럼 작았지만, 부모 관점에서 추론된 자기개념과의 괴리는 우울 집단처럼 컸다. 이는 Bentall 등(1994)의 모형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훈진과 원호택(1998)의 연구에서는 피해망상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간 괴리가 커서 Bentall 등(1994)의 모형이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자기개념 상의 괴리 자체보다는 그러한 괴리를 줄이려는 욕구가 있는지, 또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편집증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arkus와 Nurius(1986)의 “가능한 자기

(possible self)”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중요하므로, 자기개념에 있어서도 괴리 자체보다는 그것을 지각하고 있는지, 줄이려는 욕구가 있는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자기개념과 더불어 편집증 이해에 핵심변인으로 가정되어 온 것이 귀인양식이다(이훈진과 원호택, 1997, 1998; Candido & Romney, 1990; Fear et al., 1996; Kaney & Bentall, 1989; Kinderman, Kaney, Morley, & Bentall, 1992). 대체로 편집증 환자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외부 귀인을, 긍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내부 귀인을 하였다. 이러한 귀인양식은 우울 집단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들의 공통적인 발견은 편집증 또는 피해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개념을 유지하기 위한 인지적 편향과 귀인편향, 즉 자기봉사적 편향(self-serving bias)을 보인다는 것이다.

편집증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관련 증상 중 하나는 우울이다. MacKinnon과 Michels(1971)는 편집증의 기저에 우울이 있다고 했으며, Zigler와 Glick(1988)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우울의 위장된 형태로 보았다. Bentall 등(1994), Candido와 Romney(1990)는 편집장애와 우울증이 서로 관련되는 증상이며, 같은 원인, 즉 불쾌한 기분(침체된 기분: dysphoric mood)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들 역시 편집증과 우울의 핵심적 차이는 귀인양식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원호택과 이훈진(1997)은 편집성향 집단의 자기개념과 귀인양식을 알아보고, 이훈진과 원호택(1998)은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과 피해망상 환자집단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다른 사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자기개념 괴리, 귀인양식을 알아보고 우울 수준을 통제하거나 우울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우울증과의 관련성도 검증하였다. 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정적 자기개념과 부정적 타인개념이 편집성향을 설명하는 핵심 변인이었고, 귀인양식에서는 방어적 경향이 편집증과 관련되었다. 우울의 경우는 부정적 자기개념, 자책적 귀인양식이 핵심 변인이었다. 환자집단 연구에서 피해망상환자 집단은 통

제집단보다는 낮고 우울집단보다는 높은 자기개념을 나타냈고, 타인개념은 다른 두 집단보다 낮았다. 귀인양식에서는 극단적인 자기불사적 편향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이훈진과 원호택(1997)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렇지만 이 두 연구에서는 편집증이 표적지각에서의 자기참조적 추론편향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도성, 적대성 추론에서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 변인들이 편집증과 우울증의 공통요인과 변별요인으로 밝혀진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검증하지 못했다. 내외귀인 차원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귀인연구에 더해 연구되어야 할 측면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의도적이고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지, 즉 적대적 귀인(hostile attribution) 또는 적대성 추론에 대한 연구이다. 적대적 귀인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 연구에서 적용되어 온 개념으로, 최근 Epps와 Kendall(1995)은 성인에 있어서도 적대성에 대한 추론은 의도에 대한 추론과는 별도로 공격성 및 분노와 관련됨을 시사하였다. 적대감과 분노가 편집증의 핵심 특성 중 하나이고(APA, 1994; Fenigstein, 1994; Kennedy, Kemp, & Dyer, 1992; Taylor, 1985; Wessely, Buchanan, Reed, Cutting, Garety, & Taylor, 1993),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환경과 인물들이 적대적이라는 인지 도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적대성에 대한 추론 편향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또다른 측면은 자기참조적 추론 편향, 특히 원인이 아닌 표적(target) 추론에 대한 연구이다. 피해망상의 특성이 애매하거나 무관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하는 것이므로, 행동의 원인에 대한 지각 못지 않게 행동의 표적에 대한 지각이 피해의식의 이해에 중요하다. 피해의식이나 피해망상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특히 애매하거나 부정적인 사건들)을 자기와 관련되거나 자신을 표적으로 한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자들(Cameron, 1963; Fenigstein, 1984; Sims, 1988)에 의해 가정된 것이다. Fenigstein(1984)은 자기참조적 편향을 자의식(self-consciousness)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대학생 집단에서 공적 자의식과 편집성향간에 상관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b)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자의식의 경우 편집성향에 대한 설명력이 10% 미만이고(이훈진, 원호택, 1995b), 환자 집단에서는 대학생 집단과 반대로 공적 자의식보다는 사적 자의식이 피해망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Smari, Stefansson, & Thorgilsson, 1994), 편집성향 및 피해망상과의 관련성이 불명확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의식보다는 자신을 부정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의 표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직접 측정하였다.

의도성, 적대성에 대한 추론과 표적 추론에 대한 연구는 이훈진(1997, 미발표)에서 개별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연구되었으나, 자기개념 및 자기개념 괴리관련 변인들, 그리고 귀인의 핵심 차원인 내외 귀인과의 관계는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개념이 편집증과 우울증의 공통적인 핵심변인이고, 내외 귀인 차원은 이 두 증상을 구분짓는 핵심 요인이므로 사회적 추론과 관련된 이들 변인의 역할과 상호관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편집증의 원인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기한 선행 연구들의 문제를 보완하고, 선행 연구들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측면들을 검증하여 편집증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특히 자기개념과 자기참조적 표적 추론,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도성, 적대성 추론, 상황의 애매성에 따른 귀인 및 사회적 추론의 차이 등 선행 연구에서 그 상호관련성에 대해 검증하지 않았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방 법

피험자

서울 및 지방소재 대학의 대학생 444명(남 134, 여 310)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도 구

편집 척도. 이훈진과 원호택(1995a)이 제작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로 피해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한다.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제작하였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a)에 따르면,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α)는 .88~.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울 척도로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개념 질문지. 이훈진(1997)이 제작한 척도로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 측면의 자기개념을 5점 척도로 측정하고, 각 하위영역별 문항 수는 5문항이다. 대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내적합치도(α)는 .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와 상관은 .80이었고, 의미미분법을 사용한 서수균(1996)의 실제 자기개념 점수와는 .74의 상관이 있었다.

자기개념 괴리 및 괴리감소 가능성 평정지. 자신의 이상적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 정직한)를 7개 적도록 한 후, 각 단어가 현재 자신의 실제 모습과 얼마나 일치되는지(실제/이상간 일치도) 평정하고, 앞으로 그 괴리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단어별로 일치도와 괴리감소 가능성 평정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그 괴리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괴리감소 동기)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평정 문항은 1에서 7까지의 7점척도로 구성하였다. 단어 수를 7개로 정한 이유는 예비조사 결과 대학생의 경우도 단어를 7개 이상 적지 못한 경우가 10%정도 되고, 7개 이상인 경우 앞에서 썼던 형용사의 동의어를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적대감 척도. SCL-90-R(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의 적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이고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항상 그렇다)까지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귀인 및 표적지각 검사. 피험자 자신이 포함되는 애매하거나 명백한 사회적 장면을 기술하는 문장을 읽고 그 상황에 대한 가능한 해석을 쓰도록 구성하였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과 어느 정도 관련된 것인지,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지, 얼마나 의도적이고 적대적인지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상황 선정은 Fenigstein(1984)의 자기표적 검사와 귀인양식 질문지들을 참고해 12개를 선정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해 표적과 자기관련성 추론이 애매한 것으로 나타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애매한 상황의 예는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는 사람이 인사 없이 지나쳤다', '새 일을 시작하자마자 함께 일하게 된 사람이 근무시간을 바꿨다' 등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피험자를 향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긍정적 상황(예, 동료가 나를 칭찬했다), 부정적 상황(예, 동료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난했다) 각각 3문항씩 6문항을 통제 문항으로 추가하였다.

절 차

한국판 BDI, 편집 척도, 적대감 척도, 자기개념 질문지, 자기개념 괴리 및 괴리감소 가능성 평정지, 귀인 및 표적지각검사 순으로 소책자를 만들었으며, 강의시간을 이용해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444명 전체자료를 대상으로 상관 및 회귀분석을 했는데, 상관분석에서는 단순상관과 우울 및 편집증 수준의 영향을 상호 통제한 부분상관을 구했다. 회귀분석은 단계별 변인 투입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런 다음 편집증 점수에 의해 선별된 두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 차이 검증을 했는데, 우울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결 과

편집 및 우울성향과 자기개념, 자기개념 괴리, 사회적 추론 양식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간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귀인 및 자기표적지각, 의도성, 적대성 평정치는 애매한 상황에 대한 추론만 제시하였다. 표 1을 보면, 높은 적대감, 낮은 자기개념,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간 큰 괴리, 자기개념 괴리 감소가능성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편집성향 및 우울 성향과 상관이 높았다. 이는 이훈진과 원호택(1998)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표적추론과 의도성, 적대성 평정치들은 전반적으로 우울보다는 편집성향과 관련이 높았는데, 특히 타인의 애매한 행동을 자신을 향한 의도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추론하는 편향이

편집증과 상관이 높았다. 우울의 경우도 타인의 행동을 자기와 관련된 것으로, 그리고 의도적이고 적대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이 상관패턴은 우울과 편집증간의 높은 상관, $r = .48, p < .001$, 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분상관을 통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분상관과 표적이 명백한 상황(표적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추론과의 상관 및 부분상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자기개념 수준과 표적 및 의도성, 적대성 추론과의 관련성을 보면, 자기개념이 부정적일수록 다른 사람의 애매한 행동을 자신과 관련되고 자신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그 원인을 자신에게 귀인하였다. 또한 자기개념이 부정적일수록 명백하게 부

표 1. 변인간 상관행렬표

변인명	BDI	PS	HS	SCS	CONG	DMOT	POSS	ST	SELFR	INTER	INTEN	HOST
BDI												
PS	.48***											
HS	.51***	.53***										
SCS	-.52***	-.47***	-.42***									
CONG	-.30***	-.17***	-.15***	.50***								
DMOT	.02	-.09	-.04	.15***	.03							
POSS	-.19***	-.21***	-.13**	.38***	.37***	.36***						
ST	.08	.15**	.09	-.18***	-.11*	-.03	-.07					
SELFR	-.17***	-.13**	-.12**	.23***	.08	.06	.10*	-.44***				
INTER	.08	.13**	.08	-.17***	-.05	.02	.00	.30***	-.59***			
INTEN	.13**	.17**	.09	-.12*	-.01	-.09	-.13**	.39***	-.46***	.23***		
HOST	.23***	.24***	.23***	-.28***	-.14**	-.002	-.16***	.31***	-.36***	.22***	.38***	

* $p < .05$ ** $p < .01$ *** $p < .001$

BDI = Beck 우울척도 PS = 편집척도 HS = 적대감 척도 SCS = 자기개념척도

CONG =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간 일치도 DMOT = 자기개념 괴리 감소 동기

POSS = 자기개념 괴리 감소 가능성 지각

ST = 타인의 애매한 행동을 자신을 표적으로한 부정적 행동으로 지각한 정도

SELFR = 타인의 애매한 행동을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각한 정도

(점수가 낮을수록 관련성을 높게 평정한 것임)

INTER = 타인의 애매한 행동에 대한 내부귀인 정도

INTEN = 타인의 애매한 행동에 대한 의도성 평정

HOST = 타인의 애매한 행동에 대한 적대성 평정

정적인 행동의 적대성도 높게 평정했으며, $r = -.23, p < .001$, 심지어 타인의 명백하게 긍정적인 행동조차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r = -.19, p < .001$. 자기개념 괴리 변인들의 경우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간 일치율이 낮을수록 다른 사람의 애매한 행동이 적대적인 것으로 지각했으며, 괴리감소 가능성을 낮게 평정할수록 의도성과 적대성을 높게 평정했다. 또한 괴리감소 가능성을 높게 평정할수록 상대의 긍정적 행동을 자신에게 귀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r = .15, p < .01$. 현재 느끼는 적대감 수준과 타인의 애매한 행동을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r = .23, p < .001$.

내외귀인 차원과 표적 추론, 의도성, 적대성 평정치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애매한 상황의 원인을 내부 귀인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애매한 상황을 자신을 표적으로한 의도적, 적대적 행동으로 해석하는 편향이 강했다. 또한 애매한 상황을 내부로 귀인하는 경향은, 부정적 상황을 내부로 귀인하는 경향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r = .14, p < .01$, 긍정, 부정 행동 모두에 대해 그 적대성을 높게 평정하는 경향과 관련되었다. 각각 $r = .12, p < .05$.

우울과 편집증을 중심으로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관계와 부분상관관계를 제시한 것이 표 2이다. 표 2의 부분상관계수를 보면, 자기개념 수준과 적대감은 우울, 편집증 모두와 독립적인 역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간 일치도는 우울증과만 유의미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기개념 괴리는 우울증과 독특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괴리감소 동기와 괴리감소 가능성 지각은 편집증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높았다.

타인의 애매한 행동에 대한 표적 및 의도성, 적대성 추론의 경우, 우울점수와와의 부분상관계수가 유의미한 변인이 없어 이들 변인이 편집증과 독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성향이 높은 사람은 애매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이라고 추론하는 편향을 보였고, 그 원인은 자신에게 귀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명백하게 부정적인 행동의 원인을 내부귀인하지 않는 경

향, $r = -.12, p < .01$,과는 반대되는 것인데, 부정적 상황에 대한 외부 귀인 경향은 편집증의 방어적 성향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편집성향은 부정적 행동의 적대성을 높게 평정하는 것에서도 우울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편집성향과 추론양식에 대한 자기개념 및 자기개념 괴리 변인들의 예언력

자기개념, 자기개념 괴리 변인들, 표적추론 및 의도성, 적대성 추론 편향이 편집성향을 예언해 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변인투입에 의한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다. 이들 변인 모두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한 경우, 자기개념 총점이 편집점수 변량의 22.4%를 설명해 예언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애매한 행동에 대한 적대성 추론 점수로 1.8%를 추가하였다. 그 외의 변인들은 부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자기개념 괴리 변인들(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간 일치도, 괴리감소 가능성 지각, 감소 동기)을 제외하고 분석했을 때, 자기개념이 22.5%를 설명했고, 애매한 행동에 대한 의도성 지각이 1.3%를 추가하였다. 우울 수준을 통제하고 분석했을 때, 일관성있게 자기개념, 적대성 추론 순으로 나왔다. 따라서 부정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애매한 행동조차 적대적인 행동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가진 사람이 편집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했을 때, 예언변인의 수나 종류를 변화시키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개념 수준만이 유의미한 예언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개념 및 자기개념 괴리 변인들이 표적 추론 및 의도성, 적대성 추론 편향을 예언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애매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을 표적으로 한 부정적 행동이라고 추론하는 표적 추론 점수와, 애매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단순히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 그 행동의 의도성에 대한 추론, 적대성에 대한 추론 점수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도성 평정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인에서 자기개념 수준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냈고, 그 외의 예언 변인들은

표 2. 편집 및 우울 점수와 자기개념, 자기개념 괴리 관련 변인들, 귀인 및 자기표적 지각 점수간의 상관 및 부분상관(부분상관은 편집 점수와 우울 점수간의 상관을 상호 통제 한 후의 상관임. n=395~444)

측정치	편집점수와 단순상관	편집점수와 부분상관	우울점수와 단순상관	우울점수와 부분상관
자기개념 총점	-.47***	-.28***	-.52***	-.38***
자기-이상 일치도	-.17***	-.04	-.30***	-.26**
괴리감소 동기	-.09	-.15**	.02	.10
괴리감소 가능성	-.21***	-.13*	-.19***	-.11*
적대감 척도 총점	.53***	.39***	.51***	.31***
애매한 행동				
부정적 자기표적 지각	.15***	.18***	.08	.01
자기관련성 평정	-.13**	-.10	-.17***	-.09
내부귀인	.13**	.15**	.08	.001
의도성 평정	.17***	.15**	.13*	.03
적대성 평정	.24***	.18***	.23***	.10
긍정적 행동				
부정적 자기표적 지각	.04	.10	-.12*	-.16**
자기관련성 평정	.05	.10	-.06	-.11*
내부귀인	-.12*	-.09	-.16***	-.13**
의도성 평정	.06	.08	.03	-.05
적대성 평정	.06	.10	.03	-.04
부정적 행동				
부정적 자기표적 지각	.08	.10	.05	-.001
자기관련성 평정	.06	.07	-.03	-.09
내부귀인	-.09	-.12**	.01	.09
의도성 평정	.10*	.07	.11*	.05
적대성 평정	.21***	.14**	.19***	.10

* $p < .05$ ** $p < .01$ *** $p < .001$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했다. 의도성 평정에 대해서는 자기개념 괴리 가능성 지각만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이었다.

요약하면, 편집성향은 부정적 자기개념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적대성 추론에 의해 결정되며, 우울은 부정적 자기개념만으로 설명이 가능했다. 표적 추론과 의도성, 적대성 평정의 경우도 자기개념 수준이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이었다. 따라서 편집증 이해의 핵심 변인은 자기개념이며, 자기개념 괴리의 경우 자기개념 수준에 부가적인 추가 설명력이 없었다.

편집성향 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

상관 및 회귀 분석 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부 변인의 경우 이훈진(1997), 이훈진과 원호택(1998)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그리고 각 집단 내에서 상황에 따른 추론양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편집 수준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집단의 편집 척도 평균은 24.00, 표준편차는 9.51이었다. 편집 집단은 편집 점수에서 상위 1 표준편차 이상(34이상)인 경우, 비편집 집단은 하위 1 표준편차 이하(14점이하)인 경우로 하였다. 그 결과 편집 집단 76명(남 22, 여 54), 비편집 집단 75명(남 24, 여 51)이 선발되었다. 집단내 분석에서는 상기 인

원이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집단간 비교에서는 분석 과정에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사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편집 집단 60명(남 22, 여 38), 비편집 집단 61명(남 18, 여 43)이 분석되었다. 집단별 측정치 점수와 비교결과를 표 3에 제시했는데, 우울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을 사용하였다.

자기개념 수준,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간 일치도, 자기개념 괴리 감소 가능성 지각, 감소 동기에서 편집 집단은 비편집 집단보다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고,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간 일치도도 낮았으며, 자기개념 괴리를 줄일 수 있다는 지각이 낮았다. 자기개념 괴리 감소 동기 자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의 애매하거나 명백한 행동의 부정적 표적으로 지각한 정도, 단순히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지각한 정도, 의도성과 적대성에 대한 추론, 내외귀인 정도를 표적과 긍정, 부정 정도가 애매한 상황, 표적이 자신임이 명백한 긍정적 행동, 표적이 자신임이 명백한 부정적 행동 각각에 대해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적과 행동의 정서가가 애매한 상황의 경우 편집 집단이 비편집 집단과 모든 측정치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타인의 애매한 행동을 자신을 표적으로 한 부정적이고 의도적이며, 적대적인 행동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비편집 집단보다 높았다. 그리고 타인의 그러한 행동의 원인을 자신에게 귀인하는 경향도 컸다. 표적이 자신임이 명백한 타인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추론에서는 모든 측정치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표적이 자신임이 명백한 타인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추론에서는 편집 집단이 비편집 집단보다 자신을 표적으로 추론한 정도가 높았고, 타인의 행동을 더 의도적이고 더 적대적인 것으로 평정했다.(표 3 참조)

각 집단별로 상황에 따라 추론 양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편집 집단은 애매한 상황을 자신을 표적으로 한 적대적 상황으로 지각한 정도가 긍정 상황보다는 높고, $t(67)=8.46, p<.001$, 부정 상황과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비편집 집단은 애매한 상황을 자신을 표적으로 한 부정적 상황으로 지각한 정

도가 긍정 상황보다는 높고, $t(68)=4.44, p<.001$, 부정 상황보다는 낮았다, $t(68)=-5.66, p<.001$. 이는 편집 집단이 비편집 집단과 달리 표적이 애매한 상황을 표적이 자신인 부정적 상황과 동일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내외 귀인의 경우 편집 집단과 비편집 집단 모두 명백한 상황보다는 애매한 상황에 대해 더 내부로(자기 자신에게) 귀인했다. 의도성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애매한 상황보다는 명백한 상황이 더 의도적이라고 평정해, 질문지 상황 조작이 적절했음이 밝혀졌다. 적대성의 경우도 두 집단 모두에서 부정적 상황 > 애매한 상황 > 긍정적 상황 순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편집 집단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 뿐 아니라 애매한 행동까지도 자신을 표적으로 한 부정적이고 의도적이며, 적대적인 행동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비편집 집단보다 강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내외 귀인의 경우 편집 집단은 애매한 상황을 자신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 적대적 상황으로 해석하면서도 그 원인을 내부 귀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논 의

본 연구는 편집증이 부정적 자기개념에서 시작되고, 위협단서에 대한 선택적 민감성, 다른 사람의 애매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자신을 향한 의도적, 적대적 행동이라고 추론하는 경향, 방어적 귀인양식과 관련된다는 이훈진과 원호택(1997)의 가정을 검증하고, 선행 연구들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자기개념과 귀인 및 추론편향 간의 상호관계, 상황의 애매성 조작에 따른 귀인 및 추론 차이를 검증한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 및 부분상관 분석 결과, 부정적 자기개념은 편집성향과 우울의 공통요인이며, 다른 사람의 애매한 행동을 자신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 적대적 행동으로 추론하고 부정적 타인의 행동을 외부 귀인 하는 경향은 편집성향과, 그리고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간 괴리는 우

표 3. 편집 집단과 비편집 집단의 자기개념 및 사회적 추론 측정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치	편집(N=60)	통제(N=61)	F
편집척도 총점	39.60(4.99)	10.44(2.78)	785.62***
적대감 척도	10.28(3.90)	4.20(2.77)	56.96***
자기개념 총점	96.48(11.84)	117.90(11.10)	76.53***
실제-이상적 자기 일치도	3.66(.74)	4.14(.77)	10.91***
자기개념 괴리 감소동기	6.12(1.25)	6.34(.95)	1.27
괴리감소 가능성 지각	5.63(.70)	6.07(.63)	7.33***
표적과 원인이 애매한 행동에 대한 추론			
부정적 자기표적 지각	2.30(1.33)	1.23(1.28)	11.42***
자기관련성 지각*	3.95(.81)	4.49(1.01)	5.25**
내부귀인	3.74(.69)	3.19(.88)	7.23***
의도성 평정	4.28(1.02)	3.63(1.01)	6.43**
적대성 평정	4.41(.64)	3.97(.57)	8.71***
표적이 명백한 긍정적 행동에 대한 추론			
부정적 자기표적 지각	.63(1.04)	.51(.87)	.85
자기관련성 지각*	2.66(.93)	2.62(.90)	.09
내부귀인	4.26(1.12)	4.63(.99)	3.01
의도성 평정	4.63(1.06)	4.32(1.23)	1.17
적대성 평정	2.13(.68)	1.97(.75)	.79
표적이 명백한 부정적 행동에 대한 추론			
부정적 자기표적 지각	2.53(.65)	2.11(.75)	5.29**
자기관련성 지각*	2.67(.90)	2.70(1.05)	.25
내부귀인	4.18(1.02)	4.43(1.10)	2.48
의도성 평정	5.26(.83)	4.81(1.13)	3.29*
적대성 평정	5.23(.85)	4.54(1.03)	8.34***

* 자기관련성 지각은 점수가 낮을수록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평정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울과 독특한 상관울 나타냈다. 자기개념과 사회적 추론간의 상관에서는, 자기개념이 부정적일수록 다른 사람의 애매한 행동을 자신과 관련되고 자신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 적대적 행동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나타냈으며, 명백하게 부정적인 행동의 적대성을 높게 평정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타인의 행동조차도 적대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추론 양식이 편집증의 주요 특성임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편집증의 핵심 요인이 부정적 자기개념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자기개념 괴리의 정도, 괴리감소 가능성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은 타인의

행동을 적대적인 것으로 추론하는 경향과 관련되었는데, 이 역시 자신에 대한 지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줄을 시사하는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 편집성향은 부정적 자기개념과 다른 사람의 애매한 행동을 적대적인 것으로 추론하는 편향에 의해 예언되었고, 우울의 경우 부정적 자기개념만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이었다. 편집성향의 주요 특성으로 밝혀진 사회적 추론 편향들은 대부분 자기개념 수준에 의해 예언되었다. 이 결과는 자기개념이 편집증과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병리 현상의 핵심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부정적 자기개념이 우

울증에만 특정적이라는 Tarlow와 Haaga(1996)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이다. 동시에 편집증이 부정적 자기개념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이고 자기참조적인 추론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집단 차이 분석에서도 자기개념과 자기개념 괴리 변인들, 애매한 상황에 대한 표적, 의도성, 적대성 추론에서 편집 집단이 비편집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명백하게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의도성과 적대성 평정치도 비편집 집단보다 높았다. 이는 이훈진과 원호택(1998)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Neufeld(1991)의 주장과 관련지어 논의될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편집증의 이러한 추론은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해 보다 생존가치가 있는 결정을 내리는 인지과정, 즉 애매한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 결과들은 이훈진과 원호택(1997) 및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개념과 그 괴리 변인들, 편집증과 우울과의 관련성은 선행연구(이훈진, 원호택, 1998)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자기개념과 사회적 추론편향간의 관계, 그리고 행위자 행동의 표적이 누구인지 애매하고, 의도성, 적대성이 애매한 상황에 대한 귀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처음 연구된 것인데, 자기개념이 부정적일수록 방어적이고 자기참조적인 추론 편향이 강했다는 것은 편집증 이해에서 자기개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 중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애매한 상황에 대한 내외귀인에 대한 것인데, 편집성향 집단은 타인의 애매한 행동을 자신을 향한 의도적, 적대적 행동이라고 추론하면서도 그 원인은 자신에게 귀인하였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원호택, 이훈진, 1997; 이훈진, 원호택, 1998; Candido & Romney, 1990; Fear et al., 1996; Kaney & Bentall, 1989, 1992; Kinderman, 1994; Kinderman & Bentall, 1996, 1997)에서 편집증 집단이 부정적 상황을 외부귀인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이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 사건을 외부귀인하는 경향이 편집증과 유의미한 부분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애매한 상황에 대한 내외귀인은 그 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지라도 명백하게 부정적인 상황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두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이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이기 때문에 피해망상 환자들이 보이는 극단적인 방어적 귀인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따라서 명백하게 부정적인 상황은 외부로 귀인하는 경향을 보일 지라도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자기개념에 의해 내부귀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귀인양식 질문지를 사용해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과 피해망상 환자 집단을 연구한 이훈진과 원호택(1998)의 연구에서 두 집단의 방어적 귀인편향 정도와 자기개념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 점에서도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가능성은 편집성향의 수준과 관계없이 편집증을 가진 사람은 외현적이고 명백한 귀인에서는 방어적인 편향을 보이거나 암묵적이거나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내릴지라도 귀인양식은 우울증과 비슷하게 자책적인 귀인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귀인 평정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비명백 귀인양식 측정치를 사용한 Lyon, Kaney 및 Bentall(1994), 그리고 내외 귀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독립된 평정자가 평정한 Kinderman 등(1992)의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망상 환자들은 우울 집단과 마찬가지로 긍정사건 보다는 부정사건에 대해 더 내부귀인했다. 따라서 편집증의 방어적 귀인은 의식적이고 명백한 상황에서만 나타나고 그 기저에는 부정적 자기개념과 자책적 귀인양식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두가지 가능성은 일면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나, 편집성향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면 일관된 결과일 수 있다. 즉, 부정적 자기개념이 편집증의 핵심 요인이고 부정적 자기개념이 자책적 귀인과 관련되므로, 부정적 자기개념과 자기참조적 추론 편향은 편집증의 수준과 상관없이 일관된 원인적 요인이며, 의식적인 방어적 노력 정도와 상황의 명백성에 따라 보고된 자기개념이나 귀인양식에서는 다양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현재로서

는 불분명하며, 상황의 명백성과 방어적 노력의 정도, 편집증의 심각성을 고려한 추후 연구를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편집증의 핵심 요인으로 가정되었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했다는 점, 특히 Fenigstein(1984), Sims(1988), 그리고 Epps와 Kendall(1995)가 가정했던, 자기참조적 표적 추론, 적대성 추론 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자기개념과의 관련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기개념은 본 연구에서도 편집증 이해의 핵심변인으로 나타나 편집증 치료에서도 자기개념과 자존감 증진이 주요 절차로 구성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원호택, 이훈진, 1997; 이훈진, 원호택, 1998; Alford & Beck, 1994; Bentall 등, 1994; Chadwick & Trower, 1996; Freeman & Beck, 1990)과 Cameron(1963), Freud(1915/1957) 같은 고전적 이론가들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대상 집단이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으로 제한되어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기개념, 표적 추론 등의 일부 변인들은 선행연구(이훈진, 1997; 이훈진, 원호택, 1998)에서 수집된 피해망상 환자 자료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기타 변인들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추론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환자 집단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추론에서의 편향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편집증이 사회적 영역이 아닌, 그리고 동기적 요인이 배제된 순수한 추론 과정에서는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Dudley, John, Young 및 Over(1997), Garety, Hemsley 및 Wessely(1991), Huq, Garety 및 Hemsley(1989), Young과 Bentall(1995) 등의 연구가 이 분야의 선행 연구들인데, 이들의 대체적인 결론은 망상 환자들이 추론과정 자체의 이상보다는 자료수집에서의 편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는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추론 편향과도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편집성향 집단의 사회적 추론 역시 추론 과정 자체의 이상 보다는 상황의 해석에 있어 방향성과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지와 비사회적 인지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Hilton, Fein, & Miller, 1993), 편집증의 사회적 인지와 비사회적 인지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다른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를 비롯한 일련의 선행 연구들이 횡단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편집증의 원인과 경과, 위험요인 등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족이나 사회경제적 상황, 사회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 경험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Harrow, Rattenbury 및 Stoll(1988)은 망상의 내용이 망상 시작전에 가졌던 걱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으며, Butler와 Braff(1991)도 망상 내용이 환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나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Harper(1992)역시 피해망상 환자의 상당수는 실제 음모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편집증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종단적이면서도 사회문화적 요인과 개인의 체험을 모두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Berke, Pierides, Sabbadini 및 Schneider(1998)는 개인적 특성은 물론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한 다학문적 접근을 시도한 편집증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소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보다 종합적인 이해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서수균(1996). 자기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개념 및 자기관내자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

- 울대학교.
- 원호택, 이훈진(1997). 편집성향 집단의 자기개념과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173-182.
- 이영호, 송중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훈진(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훈진, 원호택(1995a).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 이훈진, 원호택(1995b).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편 연차학술발표논문집*, pp 277-290. 서울: 편자.
- 이훈진, 원호택(1997). 편집증에 대한 인지-동기적 접근: 개관. *심리학의 연구문제*, 4, 323-364.
- 이훈진, 원호택(1998). 편집증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및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 105-125.
- Alford, B. A., & Beck, A. T. (1994). Cognitive therapy for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69-38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entall, R. P., Kinderman, P., & Kaney, S. (1994). The self, attributional processes and abnormal beliefs: Towards a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31-341.
- Berke, J. H., Pierides, S., Sabbadini, A., & Schneider, S.(Ed.) (1998). *Even paranoids have enemies: New perspectives on paranoia and persecution*. Routledge: London.
- Butler, R. W., & Braff, D. L. (1991). Delusions: A review and Integration. *Schizophrenia Bulletin*, 17, 633-647.
- Cameron, N. (1963).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Boston: Mifflin Company.
- Candido, C. L., & Romney, D. M. (1990).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vs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355-363.
- Chadwick, P. D. J., & Trower, P. (1996). Cognitive therapy for punishment paranoia: A single case experi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351-356.
- Dudley, R. E. J., John, C. H., Young, A. W., & Over, D. E. (1997). Normal and abnormal reasoning in people with delusion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 243-258.
- Epps, J., & Kendall, P. C. (1995). Hostile attributional bias in adul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159-178.
- Fear, C., Sharp, H., & Healy, D. (1996). Cognitive processes in delusional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61-67.
- Fenigstein, A. (1984). Self-consciousness and the over-perception of self as targ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860-870.
- Fenigstein, A. (1994). Paranoia. In V. S. Ramachandran(Eds),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Vol. 3). San Diego: Academic Press, Inc.
- Freeman, A., & Beck, A. T.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Freud, S. (1915/1957 영역판). A case of paranoia running counter to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the disease. London: Hogarth Press.
- Garety, P. A., Hemsley, D. R., & Wessely, S. (1991). Reasoning in deluded schizophrenic and paranoid patients - Biases in performance in a probabilistic inference task.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9, 194-201.
- Harper, D. J. (1992). Defining delusion and the serving of professional interests: The case of

- 'paranoia'.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5, 357-369.
- Harrow, M., Rattenbury, F., & Stoll, F. (1988). Schizophrenic delusions: An analysis of their persistence of related premorbid ideas and three major dimensions. In T. F. Oltmanns & B. A. Maher(Eds). *Delusional beliefs*(pp 167-183). New York: Wiley.
- Higgins, E. T., Klein, R., & Strauman, T. (1985). 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A psychological model for distinguishing among different asp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gnition*, 3, 51-76.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ilton, J. L., Fein, S., & Miller, D. T. (1993). Suspicion and dispositional In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501-512.
- Huq, S. F., Garety, P. A., & Hemsley, D. R. (1988). Probabilistic judgements in deluded and non-deluded subjects.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04, 801-812.
- Kaney, S., & Bentall, R. P. (1989). Persecutory delusions and attributional styl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2, 191-198.
- Kaney, S., & Bentall, R. P. (1992).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serving bia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0, 773-780.
- Kennedy, H. G., Kemp, L. I., & Dyer, D. E. (1992). Fear and anger in Delusional(Paranoid) disorder: The association with violenc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0, 488-492.
- Kinderman, P. (1994). Attentional bias,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concep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53-66.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6). Self-discrepancies and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or a model of paranoid ide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106-113.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7). Causal attributions in paranoia and depression: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for negative ev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41-345.
- Kinderman, P., Kaney, S., Morley, S., & Bentall, R. P. (1992). Paranoia and the defensive attributional style: Deluded and depressed patients' attributions about their own attribution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5, 371-383.
- Lyon, H. M., Kaney, S., & Bentall, R. P. (1994). The defensive functions of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rom attribution task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4, 637-646.
- MacKinnon, R. A., & Michels, R. (1971). *The psychiatric interview in clinical practice*.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 Markus, H., & Nurius, Z.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 954-969.
- Neufeld, R. W. J. (1991). Memory in paranoid schizophrenia. In P. A. Magaro (Eds). *Cognitive bases of mental disorder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Sims, A. (1988). *Symptoms in the mind: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psychopathology*. London: Baillière Tindall.
- Småri, J., Stefánsson, S., & Thorgilsson, H. (1994). Paranoia,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cognition in schizophrenic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 387-399.
- Tarlow, E. M., & Haaga, D. A. (1996). Negative self-concept: Specificity to depressive symptoms and relation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120-127.

- Taylor, P. (1985). Motives for offending among violent and psychotic me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491-498.
- Wessely, S., Buchanan, A., Reed, A., Cutting, J., Garety, P., & Taylor, P. (1993). Acting on delusions. I: Prevalenc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3, 69-76.
- Young, H. F., & Bentall, R. P. (1995). Hypothesis testing in patients with persecutory delusions: Comparison with depressed and normal subjec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 353-369.
- Zigler, E., & Glick, M. (1988). Is paranoid schizophrenia really camouflaged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3, 284-290.
- 원고접수일 1998. 12. 22
수정원고접수일 1999. 2. 23
게재결정일 1999. 5. 11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ause of Paranoia: The Self-Concept and Reasoning Bias

Hoon-Jin Lee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negative self-concept, defensive attributional style, self-referential target reasoning, reasoning biases about intentionality and hostility. It was postulated that these variables are the core factors in paranoia. The Paranoia Scale, Beck Depression Inventory, the Hostility Scale, the Self-concept Scale, the Self-Discrepancy Scale, the Attribution and Target Reasoning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444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anoid tendenc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negative self-concepts, and reasoning bias that showed more self-as-target bias for other person's ambiguous behaviors and interpreted the behaviors as more intentional and more hostile. Paranoid group attributed the ambiguous situation more internally and the obviously negative situations more externally. And, It was showed that the self-concep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reasoning biases of target, intentionality, and hostility. It was confirmed that the self-concept is a core variable in paranoia. The sugges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study were discussed.